

인체 스스로 발생시키는 치유전기

| 황희수 생빛한의원 |

지난9월 제10회 심포지엄에서 발표되었던 생빛요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현장에서 통증이 있던 분들이 붙여 보고 즉각적인 효과를 봤다고 하여 그 효력을 실감했기에 워크샵을 통해 좀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편집자 주).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임상에 전념한 지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개원 후 처음 10여년은 학교에서 배운대로 한의학의 이론에 의하여 충실하게 진료를 하였습니다. 동의보감, 사상의학학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공부하였고, 새로이 개발된 치료법들 즉 약침, 추나요법 등 한방의 새로운 기술은 물론 동중요법, 향기요법 등 여러 대체의학도 열심히 습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10여년 동안 임상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지만 쏟은 노력에 비해 치료 효과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치료의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지요.

여러 공부를 전전하다가 우연히 서점에서 트리거 포인트(Trigger Point)에 대한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의사이며 케네디 전 대통령의 주치의를 역임했던 트라벨(Jarnet G Travell)분이 주창한 학설이며 치료에 침이 적용된다는 점에 흥미를 느꼈고, 미국 유럽 등의 의사들 대부분이 임상에서 트리거 포인트(Trigger Point)이론에 따라 치료하고 있다는 점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던 거지요.

몇 가지 질환을 임상에 적용해본 결과, 치료효과가 대단히 정확하고 빠른 점에 매력을 느껴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의원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트라벨이 저술한 “Myofascial Pain and Dysfunction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덕분에 트리거 포인트 이론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동안 치료하기 힘들었던 여러 질환들에 대해 확실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돌과구를 찾았다는 기쁨에 열심히 진료를 하였으나 곧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론은 틀림없으나 트라벨이 제시한 기존의 치료법, 즉 침이나 핫팩, 음파, 근육운동, 물리치료 등에 의한 치료효과가 신통치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치료율을 높일 목적으로 경혈에 사용되는 치료법을 트리거 포인트에 적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자석, 테이핑, 금침 등은 물론 정통적인 의학 지식이 아닌 검증이 되지 않은 치료법까지 모두 도입하였지만, 유의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고심하고 있던 차에 우연히 미국 정형외과 의사였던 로버트 베커(Robert Becker)가 저술한 “생명과 전기”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고, 미세전류의 중요성을 아는 계기가 되었지요. 미세전류에 대한 여러 문헌을 탐독하던 중 미세전류가 바로 인체 스스로 치료되고자 하는 자연치유 전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전기를 이용한 치료법 즉 전기침, 전자침, SSP 등이 치료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생명체 스스로 치유되려는 자연치유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조작한 강한 전기 혹은 너무 약한 전기를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질병, 나이, 건강, 체질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자연치유전기가 발생하며 치

료에 가장 적합한 전기는 본인 스스로 발생한 치유전기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기의 세기뿐만 아니라 그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치료효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질병 시 경혈이나 트리거 포인트가 있는 곳의 전기가 주위 다른 피부의 전기보다 전기저항이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자연치유 전기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경혈이나 트리거 포인트등 침을 놓아야 될 곳에 나타나는 전자기적인 변화가 바로 자연치유되려고 인체 스스로 발생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처음 시도하였을 때의 감격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허가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바짝 말라 고생하던 할머니가 아래턱 이복근에 붙이자마자 입에 침이 고였고, 방광이 아파 몇 개월 동안 고생하던 진해 아주머니에게 붙인 순간 통증이 사라졌다며 놀라워하던 일, 수년을 해오던 기침이 다음날 뚝 떨어진 아주머니, 30여 년 동안 줄곧 하루 1~2회 토했으나 이틀을 붙이고 완전히 나았다는 60대 아저씨, 불면 때문에 신경안정제로 10여년을 버티던 아주머니가 붙인 뒤 약을 떼게 되었다는 경험 등이 연구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몰핀으로도 사라지지 않던 극심한 통증이 침스밴드로 사라지는 엄청난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제까지는 병으로 여기지 않았던 질환들, 즉 발바닥이 뜨겁거나 찬 증상, 무릎이 시린 증상, 피부가 마비되거나 저린 느낌, 혀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허가 아파 매운 음식을 못 먹는 증상, 위장은 멀쩡하나 속이 쓰린 증상 등 신경성 질환 등으로 치부해 버렸던 질병들이 실제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이고 또한 생체 전기를 이용한 방법으로도만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적당한 치료법이 없어 해로운줄 알면서도 약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질환들이 생빛요법에 의해 간단히 치료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안구건조증이나 두통, 관절염 등에 기존의 약보다 효과가 훨씬 빠르고 강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별한 치료법이 없었던 알리지성 비염, 과민성 대장염, 자극성 방광염, 지루성 피부염, 염증 등의 질환들이 바로 인체 전자기파의 이상이 원인이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체는 화학과 전기 반응으로 생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치료는 화학적인 진단과 치료에만 의존하여 왔습니다. 전기적인 변화를 무시한 채 질병을 치료했기 때문에 약물의 오남용, 부작용 등 많은 문제점이 생기게 되었으며, 질환치료에 한계를 겪는 경우가 많았지요. 새로이 개발된 약품에 대한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허가 기준이 유효율 66.7%라는 사실은 약물 치료의 한계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인체 스스로 발생하는 빛을 이용한 생빛요법은 한계에 다른 화학적 치료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황화수 | 현재 생빛한의원 원장(수원), 경희대 한의과 대학원 졸업, 우석대학교 한의학과 외래교수,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 논문발표, 수종의 금속을 특정한 혈에 부착하여 오심, 구건, 매핵, 해수, 천식 등을 치료한 임상사, 국제 한의학 학술대회 논문발표, 수종의 물질을 특정한 부위에 부착하여 야뇨 등의 소변 장애를 치료한 임상분석 칩스밴드 특허(국내발명특허 0221640) 획득